

# 학교 문법에서의 ‘국어 변천사’에 대한 고찰\*

김부연(고려대)

---

## <차 례>

---

1. 머리말
  2. ‘국어 변천사’ 관련 ‘教材’
  3. ‘국어 변천사’ 교육 내용 검토
  4. ‘국어 변천사’ 단원의 개선 방향
  5. 맺음말
- 

【벼리】 본고는 2014학년도 개편 수능과 관련해 학교 문법에서 ‘국어 변천사’ 교육 내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와 문법Ⅱ》와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으로 1) 언어 단위 처리 방식 제안, 2) 학교 문법 차원의 표준화된 내용 요소 제시, 3) ‘변천’에 초점을 둔 내용 제시, 4) 탐구 활동 제시, 5) 충실한 내용 기술을 제안했다.

\* 주제어 : 국어사 교육, 교육 내용, 국어 변천사, 《독서와 문법Ⅱ》 교과서, EBS 연계 교재, 2014학년도 개편 수능시험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여름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 대회(2013. 8. 21. 부산대학교 인문관 412호)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당시 본고의 토론을 맡아 도움 말씀을 주셨던 정성에 선생님과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조언을 해 주신 심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1. 머리말

그동안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부록으로 취급되어온 ‘국어 변천사’ 교육 내용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년별 교육 내용으로 제자리를 찾게 되면서 비로소 교과서를 통해 심화 학습해야할 내용으로, 2014학년도 개편 수능 시험의 국어 B형 ‘문법’ 부문의 출제 대상이 되었다. 한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겠다는 개편된 수능 시험의 취지에 의해 검정 교과서와 수능 연계 EBS 교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sup>1)</sup>

본고에서는 ‘국어 변천사’ 교육 내용이 이들 ‘教材’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교육과정이 수시 개정으로 바뀌면서 검정 체제의 교과서가 평균 2~3년마다 제작되고 있고, 수능 시험의 70% 연계를 EBS 교재의 위상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教材’ 검토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이에 《독서와 문법》 4종의 교과서와 EBS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 국어 B형(이하 ‘수능특강’)과 인터넷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이하 ‘화작독문’)을 대상으로 삼는다.<sup>3)</sup> 현행 학교 문법을 담고 있는 ‘教材’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sup>4)</sup>

1) 국어 B형 ‘문법’의 성취 기준은 2014학년도 수능 시험의 취지와 ‘독서와 문법 II’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국어와 규범’, ‘국어와 알’의 성취 기준 내용을 출제 요소로 삼아 총 6문항이 출제된다. 이 가운데 ‘국어 변천사’와 관련된 평가 대상은 ‘국어와 알’로 국어의 변천과 관련된 문제가 독자적으로 반드시 한 문항 이상은 출제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참조). 이는 기존 수능의 어휘·어법 영역에서조차 별도로 출제된 적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이 수능에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본고에서는 검정 교과서 《독서와 문법 II》 4종과 EBS 연계 교재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教材’라 칭하기로 한다.

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가운데 국어 B형은 ‘〈수능특강〉 국어 B형’, ‘〈인터넷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인터넷수능〉 문학 B형’, ‘〈EBS N제〉 국어 270제 B형’, ‘〈수능완성〉 국어 B형’으로 총 5권이다. 이 가운데 문법과 관련하여 교과서와 교육 과정의 주요 원리와 핵심 개념을 정리한 교재는 ‘〈수능특강〉 국어 B형(이하 ‘수능특강’)과 ‘〈인터넷수능〉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이하 ‘화작독문’)이다.

## 2. ‘국어 변천사’ 관련 ‘敎材’

‘국어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와 EBS 연계 교재의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독서와 문법 II》 ‘국어 변천사’ 대단원 목차

교과서	단원 체제
미래엔	· 언어의 흐름과 독서 1. 국어의 흐름 국어의 뿌리와 역사 · 음운의 변화 · 단어의 변화 · 문장의 변화 · 담화의 변화
비상교육	· 국어의 변천 <sup>5)</sup> 1. 국어의 계통과 언어 변화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지학사	· 말과 글의 역사 1. 우리 말과 글의 변천 국어가 걸어온 길 <sup>6)</sup> ■ 1 음운의 변천 · 자음의 변천 · 모음의 변천 · 운소의 변천 ■ 2 단어의 변천 · 단어의 생성과 소멸 · 형태와 의미의 변화 ■ 3 문장의 변천 · 문장 종결 표현의 변화 · 높임 표현의 변화 · 시간 표현의 변화 · 격 표시의 변화 · 선어말 어미 ‘-오-’의 변화 ■ 4 담화의 변천
천재교육	· 국어의 역사와 미래 1. 국어의 역사와 변천 (1) 고대의 국어 생활 <sup>7)</sup> ■ 4 차자법(借字法)의 발달 (2) 중세의 국어 생활 <sup>8)</sup> ■ 2 중세 국어의 특징 음운과 표기 문법 어휘 (3) 근대의 국어 생활 <sup>9)</sup> ■ 1 근대 국어의 특징 음운과 표기 문법 어휘

4) 본고는 지난 겨울 국어사학회(2013년 1월 16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개최)와 문법교육학회(2013년 2월 23일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개최)의 주제인 ‘국어사 교육의 내용 선정을 위한 모색’과 ‘수능 국어 영역 문법 평가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문법 평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라 하겠다.

5) 첫 번째 소단원은 ‘(1) 국어의 계통과 언어 변화’로 국어의 계통을 이해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소단원 ‘(1) 국어가 걸어온 길’에서는 먼저 국어의 계통과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 대해 기술한 다음 음운의 변천, 단어의 변천, 문장의 변천, 담화의 변천 순으로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7) 고대의 국어 생활에서는 ‘국어의 계통과 특징’, ‘국어의 형성’, ‘국어사의 시대 구분’, ‘차자법의 발달’ 이라는 4개의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기술 방식이 대단히 간략하고

위 [표 1]의 각 교과서의 대단원 목차만으로도 검정 교과서의 특성을 반영 하듯 단위 체재에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국어의 변천을 언어 단위별 변화 양상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과 언어 단위별 특징으로 보고자 한 것이 그러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차원에서 국어의 변천을 다룰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언어 층위를 그대로 구현하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한편 4종의 교과서는 모두 ‘제재 중심’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주로 각 교과서의 저자가 직접 집필한 설명문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어사와 관련된 내용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한 글을 집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다. ‘국어 변천사’ 단원은 특성상 국어사적 지식이 강조되므로 학습 요소를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방식이 적절하다. 따라서 각 시대별 국어의 특징을 충실히 설명해 주고 학생들이 내용을 체계화하여 정리할 수 있는 본문 마련은 필수라 하겠다.

아래의 [표 2]는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국어 변천사’의 내용 체재이다.

---

추상적인 표로만 제시되고 있어 고대 국어 시기의 특징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8) 중세의 국어 생활에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중세 국어의 특징을 다루고 있다.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내용은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동기, 훈민정음 창제의 원리,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라는 세 개의 소항목으로 기술하고 있다. 중세 국어의 특징은 음운과 표기, 문법, 어휘에 대해서만 항목별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 9) 근대의 국어 생활에서는 근대 국어의 특징, 문체의 발달, 국어의 수난을 다루고 있다. 근대 국어의 특징 또한 음운과 표기, 문법, 어휘에 대해서 항목별로 매우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 10) 교과서 검정 체제로 접어들면서 ‘문법’ 영역의 단위 구성 방식도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인다. 종래의 방식과 같이 소단원의 본문에서 직접 문법 내용과 관련된 제재를 구성하는 ‘제재 중심’ 단위 구성과 소단원 본문 제시 없이 학습 활동에 문법 내용과 관련된 글이나 실제 국어 생활 속의 담화를 제시하는 ‘활동 중심’ 단위 구성이 그러하다(김유범 외, 2012:89 참조).

[표 2] EBS 연계 교재의 '국어 변천사' 내용 체재

수능특강	화작독문
. 국어의 변천 1. 국어의 역사 음운의 변화 어휘의 변화 문법의 변화	국어의 변천과 미래 ■표기법의 변천 ■음운의 변천 ■문법의 변천 ■의미의 변천 ■어휘의 변천

위와 같이 EBS 연계 교재는 모두 언어 층위별로 변천 양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층위에도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시대별 구분 없이 제시하고 있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교육과정 정리하기' 또는 '원리와 개념 해설'이라는 장치에서 개요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교과서와 달리 내용 요소를 '진술'하기 보다 간략히 '요약'하고 있다. EBS 연계 교재는 개편된 2014학년도 수능 시험에 따라 2009 교육과정과 이를 구현한 4종의 검정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잘 담아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생겼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제시 방법에 따라 집필자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야 하므로 자칫 교과서의 내용이 왜곡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표 1]과 [표 2]를 종합해 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음운, 단어, 문장, 담화의 국어 변천사”에 대한 교육 내용은 ‘教材’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언어 층위별 변화 양상을 설명한 통시적 방식과 각 시대의 언어 층위별 특징을 설명한 공시적 방식이다.

[표 3] '教材'에 나타난 설명 방식의 차이

공시적 설명 방식		통시적 설명 방식	
설명식	개요식	설명식	개요식
비상교육 <sup>11)</sup>	천재교육	미래엔, 지학사	수능특강, 화작독문

### 3. 국어 변천사의 교육 내용 검토

본장에서는 ‘教材’에 수록된 국어 변천사에 대한 내용을 ‘표기법’, ‘음운’, ‘단어(형태, 단어 형성, 어휘 등)’, ‘문장’, ‘담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12)</sup> ‘教材’의 집필자마다 관점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므로 각 언어 층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술상의 차이를 보이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 가. 표기법

[표 4] ‘표기법’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수능특강	화작독문
차자 표기법	고대						
연철 표기	중세						
분철 표기	중세						
	근대						
중철/혼철 표기	근대						
붙여쓰기	중세						
띄어쓰기	근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기(법)’ 차원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다보니

- 11) 전형적인 설명문 방식은 아니다. 전체적으로는 설명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각 시기 국어 특징의 내용 요소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본문에는 국어의 특징적 내용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나열되고, 집필자 입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판단한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이 밑줄 친 내용 요소에 한해 구체적인 예를 ‘활동’에서 찾도록 하고 있다.
- 12) 교육과정에 제시된대로 ‘음운, 단어, 문장, 담화’ 층위에서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나 [표 1]에서 ‘음운’과 ‘표기(법)’을 동일한 층위에서 다루고 있음이 확인된 바, 이 둘의 언어 층위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섯 가지 언어 층위로 재구성하여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敎材’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음운’에서 제시되는 모습을 보인다.<sup>13)</sup> 당시의 표기법 체계를 구명해야만 표기에 사용된 문자와 소리 간의 대응을 살필 수 있으므로 표기법 역사에 대한 내용 요소는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말소리를 문자로 표기하는 규칙이 어떻게 수립되고 변화되었는지 먼저 이해한 다음에 음운, 문법, 어휘 등 언어 층위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이다.

[표 4]에서 순수 표기법을 대표하는 내용은 ‘연철’, ‘분철’, ‘중철’인데 소수의 ‘敎材’에서만 다루고 있다. 이들 ‘敎材’에 기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철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고(손+을 소닐), 분철 표기는 체언과 조사를 분리해 쓰는 것이며(손을), 중철 표기는 소리와 형태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된 것이다(손닐). 국어 표기법은 역사적으로 ‘연철 분철/중철 분철’로 변화했다.

- 비상교육(2012:124)

- [중세 국어의 특징 중세 국어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 [연철, 連綴]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문헌에서는 조사나 어미를 분리해 적는 끊어 적기[분철, 分綴]의 형태도 찾아볼 수 있다.

- 천재교육(2012:318)

- [근대 국어의 특징 중세의 이어 적기 방식이 현대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가는 과도기 현상으로 ‘님물’과 같은 거듭 적기 방식이 나타난다.

- 천재교육(2012:326)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 표기법의 원리를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국어의 표기법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sup>14)</sup> 더불어 ‘음운’에서

13) [표 4]는 ‘표기’와 ‘음운’이 혼재되어 있는 교재 가운데 표기법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가려낸 것이다.

14) 《독서와 문법Ⅱ》 ‘문법’ 영역의 ‘(1) 국어와 규범’ ‘(나) 올바른 단어 사용’에서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표준어 규정을 이해하고,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내용 요소가 있다. 한글 맞춤법의 역사와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문법 사항 등을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구현한 교과서 대부분에는 한글 맞춤법의 역사와 관련하여 연철 표기,

음절 말 자음의 대립 양상(흔히 8종성법, 7종성법 등)을 다룰 때 매우 유용한 배경 지식이 된다. 따라서 ‘연철 표기(이어 적기)’, ‘혼철/중철(거듭 적기)’, ‘분철 표기(뿔어 적기)’ 등의 용어 정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 문자 체계와 표기 의식, 이를테면 “훈민정음”의 거의 모든 문자가 그 음가대로 사용되었으므로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하자는 의식이 중세 국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이었다.”는 식의 설명이 부연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표기법의 변천은 어휘적 형태와 문법적 형태만을 의식했던 차자표기법에서 중세 국어 시기 음소적 표기, 근대 국어 시기 형태음소적 표기, 그리고 현대 국어 시기 형태를 중시하는 표기로 이어지는 변화를 통해 그 당시 중시했던 문법 의식이 무엇이었는지 각 시기의 언어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sup>15)</sup>

나. 음운

ㄱ. 자음

[표 5] ‘음운’의 자음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수능특강	화작독문
예사-거센소리 계열	고대							
된소리 계열 등장	중세							
음절 끝 자음의 음가	고대		16)					
음절말 위치의 자음 대립	8개	중세						
	7개	근대						
ㄹ	존재	중세						
	변화							
ㄷ	존재	중세						
	소멸	중세						
		근대						

분철 표기 등 각 시대의 표기법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표기법의 역사는 국어의 변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 요소라 하겠다.

15) 차자표기법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는 황선엽(2013:53)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핀 사항은 김부연(2013:13-14)을 참조하면 된다.



			미래언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육	수능 특강	화작 독문
유성 마찰음 ㅇ	존재	중세						
	소멸	근대						
파찰음 ㅈ, ㅉ	비구개음	중세						
	구개음	근대						
구개음화		근대						
두음 법칙		근대				17)		
어두자음군 (ㅂ, ㅃ계)	존재	중세						
	된소리화	근대						
ㅁ, ㅂ	사용	중세						
	소멸	근대						
ㅃ	사용	중세						
	소멸	근대						
거센소리화와 된소리화		근대						

우선, 음절말 자음의 대립 양상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대체로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8개 종성(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사용했던 반면, **근대 국어의 표기법은 7개의 종성(ㄱ, ㄴ, ㄹ, ㅁ, ㅂ, ㅅ, ㅇ)**을 사용했다... - 비상교육(2012:127)
- [중세 국어] 받침에는 주로 **여덟 개의 초성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16) 다른 '教材'와는 달리 비상교육(2012:114)에서만 다루고 있다. "고대 국어에서 음절의 끝 자음은 오늘날과는 달리 본래의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으리라 생각된다."고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넛금(尼叱今=尼斯今=尼師今)"을 제시하였다. '叱, 斯, 師'는 '넛금'의 '넛'의 끝 자음인 'ㅅ'을 표기한 것으로 '넛금'의 'ㅅ'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내용이다.

17) 천재교육(2012:326)에서는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어두의 ㄴ이 타락되기 시작한다 (넛금)임금)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 현상은 'ㄴ'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ㄴ'이 구개음 'ㄴ'으로 존재할 때 탈락할 수 있는데 'ㄴ'이 구개음 [ɲ]을 갖게 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이다. 따라서 근대 국어 시기에서 다루는 구개음 'ㅈ, ㅉ'에 따른 'ㄷ' 구개음화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현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ㅂ’계 합용 병서와 ‘ㅃ’계 합용 병서는 중세 국어 시기 어두 자음군이 존재했음을 반영하는 표기이다. ‘敎材’에 수록된 기술 사항은 문자적 차원과 음성적 차원으로 대별된다. 중세 국어 시기 어두 자음군의 ‘ㅂ’이 [p]의 음가를 지녔을 가능성은 ‘좁쌀’, ‘범씨, 접때’ 등 화석형 합성 명사에서 발견된다. 이는 어두자음군 이해를 위해 음성적 차원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함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중세 국어 시기에 존재했던 어두 자음군은 ‘ㅂ’계 ‘ㅃ’계의 어두 ‘ㅂ’이 음가([p])를 지녔으나 근대 국어시기 어두 자음군이 소멸하면서 이들은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천재교육(2012:318)의 “겹자음이 모두 발음되는 어두 자음군”이라든지, 미래엔(2012:111)의 “이러한 소리”, 그리고 화작독문(2013:137)의 “초성에는 자음이 하나만 올 수 있게 됨”이라는 기술들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표기에 사용된 문자를 먼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와 소리 간의 대응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한편, 앞서 지적했듯이 많은 ‘敎材’에서 ‘음운’과 ‘표기’ 구분이 모호한 기술이 나타나는데 일례로 ‘ㄹᄇᆞ’를 들 수 있다. “근대 국어에 와서... ‘ㄹᄇᆞ’도 나타나지 않는다(지학사, 2012:301).”는 기술이 그러하다. 소멸 시기만을 언급했을 뿐 ‘ㄹᄇᆞ’이 무엇인 학생들은 알 수가 없다.<sup>18)</sup> 교과서에는 근대 국어 시기에 ‘ㄹᄇᆞ’가 사라졌다고 하였는데 표기가 사라진 것이지 된소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ㄹᄇᆞ’는 근대 국어 시기에 ‘ㄹᄇᆞ’의 표기(ㄹᄇᆞ) 형태로 나타나 이 시기에도 ‘ㄹᄇᆞ’의 된소리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이기문, 2008:139-140 참조).

이처럼 ‘음운’과 ‘표기’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층위에서 다루고 있는 ‘敎材’가 대단히 많다. 김유범(2013 7:82)에서는 언어적 특징과 표기적

18) ‘ㄹᄇᆞ’는 해례본 《훈민정음》 ‘합자해’의 각자 병서에 ‘ㅃ, ㅍ, ㅍᄇᆞ’에 대해 예사소리와 된소리 간의 변별적 대립어로 설명하고 있다(해[音]: ㄹᄇᆞ).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중세 국어 시기 ‘ㄹᄇᆞ’는 동사 어간에 존재했던 된소리라는 음소적 자질을 갖고 있었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특징을 아울러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해 언어와 문자(또는 표기)를 구별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라 지적한 바 있다.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내용인 만큼 표기에 사용된 문자와 소리 간의 대응 관계를 어떤 차원에서 기술할 것인지 관점을 통일하여 교재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5]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뵙’과 ‘△’ 등의 문자가 주목된다. 이들은 모두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에서 전형적인 음소 목록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 단계인 근대 국어의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이다. 이 가운데 ‘뵙’은 현대 국어의 ‘ㅂ’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용언들이 중세 국어 시기에 ‘뵙’을 받침으로 갖고 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고바’ 고와, ‘더벼’ 더워 등은 이러한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 미래엔(2012:111)
- ‘뵙’은 대개 [w]로 변하여 이중 모음을 형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굴+-아’는 ‘고바 고와’로 되고, ‘굴+-어’는 ‘구벼 구워’로 변하였다. ‘굴+-이’는 ‘고비 고이’와 같이 변하여, ‘뵙’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멸한 경우도 있음을 보여 준다. - 지학사(2012:300)
- 유성음 사이에 쓰이던 뵙은 **15세기 중반부터 반모음 /ɔ, ʏ/로 바뀐** - 수능특강(2013:82)

‘뵙’의 변화 시기와 변화 양상에 대한 내용이다. ‘뵙’가 변화되는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教材’도 있으나 대체로 15세기 중반으로 보는 것이 공통적이다. 이에 반해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반모음 [w]로 변했다는 데 일치하지만, “‘뵙’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예 탈락해 음가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으로 설명한다.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다. ‘고비’ > 고이, ‘갓가뵙’ > 갓가이, ‘더러뵙’ > 더러이 등은 같이 선행 어간 말 ‘뵙’에 모음 ‘ㅣ’로 시작하는 어미가 후행할 경우 [w]의 음가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로 변하였다.<sup>19)</sup> 따라서 ‘뵙’가 모음 ‘ㅣ’ 앞에서

는 탈락하여 음운 변화 없이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기술해서는 안 된다.

## ㄴ. 모음

[표 6] '음운'의 모음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육	수능 특강	화작 독문
7모음 체계		고대						
		중세						
8모음 체계		근대						
모음조화	규칙	고대						
		중세						
	혼란	중세						
	존재		중세					
	음가 소멸	1단계						
		2단계	근대					
모음 추이(母音推移)		중세						
다양한 이중 모음		중세						
‘ㅐ, ㅔ’의 단모음화		근대						20)
원순모음화		근대				21)		
‘ㅅ, ㅆ, ㅈ’ 아래 ‘ㅡ’의 ‘ㅣ’ 변화		근대						
‘겨사-’의 ‘계사-’ 변화		근대						

19) '고이, 갓가이, 더러이' 등도 'ㅍ'w'의 변화를 겪은 어휘들로 \*고위, \*갓가위, \*더러위 등으로 표기될 법도 한데, 중세 국어의 'ㄱ'은 이중 모음이어서 /wi/를 표기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표기된 것이다(국립국어원 편, 1996:47 참조).

20) 교재에는 "ㅐ, ㅔ, ㅐ, ㅔ의 단모음화"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관점에서 모음의 변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시대에 이들 모음이 단모음화가 되었는지 밝히지 않아 자칫 'ㅐ, ㅔ, ㅐ, ㅔ'가 같은 시기에 단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

21) 천재교육(2012:327)에서는 "18~19세기에는...순음(唇音, 입술소리) 밑의 ㅡ모음이 원순모음 ㅜ로 바뀐다(물, 불, 뵤다) 물, 불, 뵤다)."고 기술하였다. 원순모음화 현상은 근대

모음 체계 가운데 ‘·’는 중세 국어의 전형적인 음소 목록을 이루었던 것으로 중요하게 다룰만한 내용 요소이다.

- 중세 국어에 있었던 ‘·’(아래아)는 음가가 점차 소멸하여 처음에는 둘째 음절 이해에서 ‘·’가 주로 ‘ㄹ’, ‘ㄴ’, ‘ㅈ’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고, 나중에는 첫음절에서도 ‘·’가 ‘ㅈ’로 바뀌게 되었다. - 미래엔(2012:112)
- 모음에서는 ·가 점차 소실된다.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해에서 ·가 주로 ㄹ로 변하며, 18세기경부터는 첫째 음절에서도 ·가 주로 ㅈ로 변한다. - 천재교육(2012:326)
- ‘·’ 소실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소실은 주로 16세기에 일어났는데, 둘째 음절 이하에서 ‘·’가 주로 ‘ㄹ’로 변하였다. ... 2단계 소실은 근대 국어 시기인 18세기에 주로 일어났다. 첫음절의 ‘·’가 ‘ㅈ’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 - 지학사(2012:301)
- ‘·’의 소멸 [예] 밋숨)마음, 하늘)하늘 - 화작독문(2013:137)

대부분의 교재에서 ‘·’의 변화 시기와 두 단계 과정에 걸친 변화 양상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평면적인 내용 제시만으로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일깨울 수 없다. 동일한 음소임에도 불구하고 출현하는 음절 위치에 따라 그 변화가 상이하게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말소리의 변화에서 음절 위치가 중요했다는 점까지 나아갈 때, 곧 국어의 음절 인식과 ‘·’의 소멸 과정이 유기적으로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 소멸로 인해 모음 체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국어의 모음 체계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단순히 ‘·’의 두 단계에 걸친 소멸 과정만을 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가 왜 소멸되었고, 이것이

---

국어 시기의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 중요한 내용 요소로 학교 문법에서는 이 정도의 수준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원순 모음화의 핵심은 중세 국어 시기 모음 체계에서 고모음 계열의 ‘ㅑ’와 ‘ㅓ’ 사이에는 비원순과 원순이라는 대립 양상이 있었으나 근대 국어 시기 원순 모음화로 인해 순음(唇音) 아래에서 이러한 대립이 사라졌다는 데 있다.

모음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음 체계 변화 역사에 최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모음 추이(母音推移)’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부 ‘敎材’에서 다루고 있는 ‘모음 추이’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전기 중세 국어에서 후기 중세 국어로 넘어오는 시기에 모음 위치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모음 추이(母音推移)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모음 추이의 결과, 발음이 어려운 후설 저모음 위치로 밀려난 ‘·’는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 지학사(2012:301)
- ‘·’ 소실로 인해 변화가 일어남.

ㅣ	ㅓ	ㅗ
ㅑ	ㅕ	ㅛ
	ㅓ	

〈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ㅣ	ㅡ	ㅓ
	ㅑ	ㅗ
	ㅓ	·

〈후기 중세 국어의 모음 체계〉

ㅣ	ㅡ	ㅓ
ㅑ	ㅑ	ㅗ
ㅓ	ㅓ	

〈근대 국어의 모음 체계〉

- 수능특강(2013:82)

검정 교과서에서는 ‘모음 추이’에 대해 “모음 위치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이라고만 언급하였고, EBS 교재에서는 ‘·’ 소멸로 인한 모음 체계의 변화를 표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전기 중세 국어 시기의 ‘모음 추이’에 따른 모음 체계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敎材’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자세한 해설도 없이 제시된 생소한 용어와 표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국어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내용 요소의 단순 나열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것처럼 국어사를 지나치게 넓고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敎材’에서 ‘모음 추이’라는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 이상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날개’ 등과 같은 ‘敎材’ 구성 장치를 이용하여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모음 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을 관

찰하고, ‘·’의 소멸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는 등 모음 체계 변화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은 현대 국어에서보다 중세 국어 시기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모음 조화’에 대한 기술이다.

- [중세 국어] 모음 조화를 보이는 7개의 단모음(ㅣ, ㅡ, ㅏ, ㅑ, ㅓ, ㅕ, ㅗ)과... - 비상교육(2012:118)
- [중세국어] 모음 조화가 대체로 지켜지는 편이었으나 혼란도 보인다.  
예) 펴아, 니즈니 - 천재교육(2012:318)

‘모음 조화’에 대한 내용은 음운 체계에서의 모음 조화와 음운 변동에서의 모음 조화로 나누어진다. 비상교육(2012:118)에서 말하는 ‘모음 조화’는 전자의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으로 《훈민정음》 ‘해례’에 잘 나타나 있다. ‘설축(舌縮)’에 해당하는 ‘·, ㅓ, ㅕ’는 양성 모음, ‘설소축(舌小縮)’에 해당하는 ‘ㅡ, ㅑ, ㅗ’는 음성 모음, 그리고 ‘설불축(舌不縮)’인 ‘ㅣ’는 중성 모음이라는 중세 국어 시기 모음 체계에 따른 ‘모음 조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천재교육(2012:318)에서의 ‘모음 조화’는 후자의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형태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모음 조화 현상을 말한다. 형태소 내부가 아닌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음소 변동으로서의 모음 조화 현상을 보여준다. 동일한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으나 이 또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약간의 오류가 발견된다. 모음 조화 혼란의 예로 ‘니즈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모음 조화의 혼란 현상이 아니다. ‘ㅣ’는 중립 모음의 역할을 하였기에 양성 모음(‘낮+으니’), 음성 모음(‘낮+으니’) 모두에 연결될 수 있었던 일반적인 규칙이었다. 따라서 모음 조화 혼란을 보이는 예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㉔.운소

[표 7] ‘음운’의 운소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수능특강	화작독문
성조(방점) 체계	존재	중세						
	소멸	근대						
	변화							

중세 국어 시기는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의미를 분화시키는 성조 언어였다. 이러한 운소적 특징은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 시기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으로까지 작용한다. 그만큼 중세 국어의 성조가 후대 국어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는 의미이다. ‘敎材’에 나타난 기술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처음은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 미래엔(2012:112)
-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 지학사(2012:302)
- 방점 표기를 통해 저조(평성)와 고조(거성), 그리고 이 둘이 복합된 저고조(상성)의 성조 체계 - 비상교육(2012:118)

대부분의 설명은 언해본 《훈민정음》에 언급되어 있는 “上聲은 처서미 늦갑고 乃終이 노픈 소리라”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대목에서 상성이 ‘처음’과 ‘나중’의 지속 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음(長音)의 속성도 있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상성에 대한 의미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비상교육(2012:118)과 같이 중세 국어 음운론 차원에서 상성이 저조의 평성과 고조의 거성이 복합된 성조였다는 예를 보여주는 설명도 성조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sup>22)</sup>

22) ‘상성’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는 굴곡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평성’과 ‘거성’이 합쳐질 때 ‘상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보아 ‘상성’은 음운론적으로 ‘평성’인 저조와 ‘거성’인 고조가

다. 단어  
형태

[표 8] '형태'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수능특강	화작독문
조사	주격(伊,是), 관형격(矣,衣,尼), 부사격(中,良中,留), 목적격(乙,肱), 보조사(隱,置)		고대					
	주격 조사	'이'	중세	23)				
		'가'	근대					
	목적격 조사 '을/를, 을/를'							
	관형격 조사 '-스', '-이/의'		중세					
	존칭 호격 조사 '-하'		중세					
체언	형태 교체	'ㄱ' 곡용	중세					
		'ㅎ' 보유 체언						
	체언의 단일화 경향		근대					
	의문 보조사가 결합된 대명사 '누고, 누구'		근대					
용언	활용 체계의 완성		고대					
	불규칙 활용 [ㄹ계 활용, ㄷ계 활용]		근대					
	용언 분화의 미완성		중세					
	(존재)동사 어간 '잇-'의 단일화		근대					
어미	관형사형 어미 '-ㄴ', '-르'의 명사형 기능		중세	24)				
	명사형 어미	'-ㅁ'	중세					
		'-기'의 분포 확대	근대					

병치된 성조라고 할 수 있다(국립국어원 편, 1996:32 참조).

‘단어’의 ‘형태’ 부문에서 중세 국어 시기 주격 조사의 실현 양상을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 명사가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관계없이 ‘이’만 쓰였다. - 지학사(2012:310)
- 15세기 국어에는 주격 조사로서 ‘이, ㅣ, Ø’가 있었으나, 중세 국어 시기 말에 나타난 ‘가’가 근대 이후 널리 쓰여 현대 국어에서는 ‘이/가’로 나타남. - 수능특강(2013:82)
- 주격 조사가 ‘이, ㅣ, Ø’에서 ‘이, 가’로 바뀜 - 화작독문(2013:137)

검정 교과서 지학사(2012)의 경우,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가’가 중세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이’ 형태로만 사용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런데 자칫 EBS 연계 교재를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 시기 주격 조사 ‘이’는 선행하는 체언의 마지막 음절 끝소리에 따라 세 가지 이형태 ‘이, ㅣ, Ø’가 실현되었다는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sup>23)</sup>

다음은 체언의 형태 교체에 대한 기술이다.

체언이 조사와 결합할 때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 단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ㅎ이 없이 쓰이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ㅎ이 나타나는 ㅎ 종성 체언이 있었다. [예] 돌 + 이    돌히, 돌 + 을    돌흘 천 재교육(2012:318)

23) 미래엔 교과서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가’를 ‘문장의 변화’에서 다루고 있으나 이는 품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본고에서는 ‘단어’ 층위에서 다루도록 한다.

24) 중세 국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ㄴ, -르’이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사라졌지만 ‘어른’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다. 중세 국어 시기 ‘얼-[孺]’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얼원[長子]’이 명사로 굳어진 것이 바로 이 용법에서 기인했음을 보여준다.

25) 이밖에 주격 조사 ‘가’의 등장 시기에 대한 기술 차이도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지적은 김부연(2013:15-16)을 참조하면 된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에 조사가 통합될 때 그 체언이 형태가 교체되는 독특한 현상이 있었다. 그런데 기술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돌히, 돌흘’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ㅎ’이 나타난다고 하여 마치 격조사가 특이하게 변화한 것처럼 이해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라는 조건만 제시했기에 나타난 오류이다. 당시 ‘ㅎ’ 보유의 체언이 자동적으로 교체되었다는 본질적인 특성을 보여주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설명이다. 따라서 ‘ㅎ’ 보유 체언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서 쓰이면 종성의 ‘ㅎ’가 탈락하고, 모음으로 된 조사 뿐 아니라 ‘ㄱ, ㄷ’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ㅎ’가 나타난다는 설명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 단어 형성

[표 9] ‘단어 형성’에 대한 내용 요소

교재	중세 국어	근대 국어
미래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생 접미사에 의한 사동사 피동사 형성</li> </ul>	
비상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통사적 합성법 발달</li> <li>명사형과 파생 명사의 형태 구분</li> <li>특수한 사동 접미사 ‘-으-’<sup>26)</sup></li> <li>서수사 형성 접미사 ‘-자히, -차이, -재’</li> <li>일수(日數) 단어 형성 접미사 ‘-을/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우’의 소멸로 인한 명사형과 파생 명사의 구분 사라짐</li> <li>사동형의 ‘-히’가 ‘-시’로 대체됨</li> <li>서수사 ‘첫째’의 출현</li> <li>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 출현</li> <li>접미사 ‘-의&gt;-이’의 변화로 파생 명사와 파상 부사의 형태적 구별 사라짐</li> </ul>

위의 [표 9]와 같이 단어의 형성과 관련된 국어 변천의 내용은 단지 일부

26) 비상교육(2012:119)에서는 “‘살이다’는 ‘어떤 곳에 살게 함’, ‘사르다’는 ‘목숨을 살림’을 뜻한다.”라고 설명한다. 사동 어간을 형성하는 주된 접미사 ‘-히’ 외에 드문 예로 ‘-으-’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으-’는 중세 국어 시기 비생산적인 접미사로 그 형태가 많이 없어졌고 기존 교재에서도 이 내용은 대부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교과서에서는 현대 국어의 ‘사로잡다, 사로잡히다’에 남아 있는 ‘사르-’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중세 국어 시기 특수한 사동접미사 ‘-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어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둔 흥미로운 내용이라 하겠다.

검정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다.<sup>27)</sup>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단어’는 형태론과 어휘론, 의미론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언어 층위이다. 이 가운데 형태론은 굴절 체계 뿐 아니라 형태소들의 단어 형성법까지 아우르는 영역이므로 단어 형성에 나타난 변화 양상을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중세 국어 시기의 단어 형성법은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 많다. 특징적인 접두사와 접미사의 유형들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었고, 무엇보다 합성 동사를 구성할 때 연결어미를 개재시키지 않고 동사 어근끼리 직접 결합하는 방식이 생산적이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단어 형성법이다. 이렇듯 단어 형성에서 발견되는 변화 양상 역시 중요한 내용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 형성 차원을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하다.

## 어휘

[표 10] ‘어휘’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수능특강	화산독문
어휘 체계	고유어		고대					
			중세					
	한자어	고유 지명의 한자어화	고대					
		한자어와 고유어의 경쟁	중세					
		한자어의 고유어 대체	근대					

27) 내용 요소에 대한 기술이 상세하지만은 않다. 본문에는 해당 국어 시기의 단어 형성에서 특징적인 내용만 추려서 간략하게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학습 활동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근대 국어 시기 “-ㄴ) 1’의 변화로 파생 명사와 파생 부사의 형태적 구별이 사라졌다.”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습 활동에 제시된 여러 용례들 가운데 “중세 국어의 파생 명사 ‘노피’와 ‘기리’가 근대 국어에서는 ‘노피’와 ‘기리’가 되었다.”를 찾는 것이다. 본문만 읽어 보면 설명이 전혀 배제된 채 단순히 내용만 나열되어 있어 암기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집필자의 의도는 본문과 학습 활동과의 연계에 있다. 본문에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활동을 통해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례를 찾아보게 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내용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례가 정확해야 할 것이며 고등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게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차 용 어	중국어 유입		고대						
	중국어계 차용어	중국 근대음	중세						
		우리나라 발음	근대						
	몽골어의 차용		중세						
	여진어의 차용		중세						
	만주어의 차용		근대						
어 휘 양 상	의미	축소	중세						
		확대	중세						
		이동	중세						
	형태의 변화 <sup>28)</sup>		중세						
	형태와 의미 변화		중세						
			근대						
	모음 대립에 의한 의미 차이		중세		29)				
	어휘에 의한 높임법 발달		중세						

어휘는 음운이나 문법보다 변화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어휘의 변천을 통해 국어의 변천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문이다. 그러나 어휘에 대한 교육 내용은 앞서 살펴본 음운이나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어휘에 대한 내용이 음운이나 형태 등 다른 부문과 관련된 점이 많아 그 기술이 중

28) 비상교육(2012:118)에서는 ‘헛다가→만일에’, ‘반드기→반드시, 반드시’, ‘땡굴→땡들-, 땡들-’로 대체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고, 지학사(2012:305)에서는 ‘뭇술>마을, 드르>들, 물>물’ 등을 형태 변화의 예로 들고 있다. 이들 교재에서 보여주는 어휘의 형태 변화란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달라졌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차원의 접근임을 구별해야 한다. 비상교육(2012)의 경우 ‘반드기~반드시’와 같이 의미가 같고 형태가 유사한 단어 쌍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며, 지학사(2012)의 경우는 의미가 같고 음운 변화에 의해 형태가 바뀐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29) 모음 조화에 따라 어휘가 분화하는 양상은 현대 국어에서보다 중세국어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상교육(2012:160)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예로써 보여주고 있는데, 학습자 입장에서 중세 국어의 표기 형태만으로는 이들이 어떤 의미 차이를 보이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젯[皮]: 젯[表], 할[謔]: 헐[破], 붉[赤]: 붉[明], 늙[老]: 늙[古]’ 등과 같이 한자를 병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복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표 10]과 같이 어휘에 대한 내용은 크게 고유어 · 한자어 · 차용어 등의 ‘어휘 체계’와 어휘의 형태 및 의미 변화라는 ‘어휘 양상’ 두 차원으로 나뉜다. 종래의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와 관련하여 의미의 변화 원인과 양상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어 왔음을 상기해 보면 그 범위가 확대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차원을 모두 다루고 있는 ‘敎材’는 단 한 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어느 한 가지 차원에 치중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가 ‘敎材’마다 달라 학생들이 어떤 교재로 학습했는지에 따라 어휘의 역사에 대한 이해 정도는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 라. 문장

[표 11] ‘문장’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육	수능 특강	화작 독문
의문문	판정	‘아’ 계통 의문형 어미		중세						
		의문 보조사 ‘가’								
	설명	‘오’ 계통 의문형 어미		중세						
		의문 보조사 ‘고’								
	인칭	1·3인칭 의문형 어미		중세						
2인칭 의문형 어미										
높임 표현	주체	선어말 어미		고대						
				중세						
	객체	선어말 어미		고대						
				중세						
		소멸		근대						
	상대	선어말 어미	사용	중세						
			소멸							
높임 등급		중세								
시간	과거	선어말 어미	∅, -더-	중세						
			-앗/엇-	근대						

표현	현재	선어말 어미 ‘-느-’		중세						
	미래	선어말 어미	-리-	중세						
			-겻-	근대						
	통어적 구성 ‘-어 잇’				중세					
선어말 어미 -오-	인칭법		사용	중세						
			소멸	근대						
	대상법		사용	중세						
			소멸	근대						
문장 구성	무엇-이 무엇-이 준다			중세						
	무엇-을 누구-를 주다									
	주어적 속격						30)			

[표 11]과 같이 문장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문장 종결 표현, 특히 의문문과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통사적 기능의 선어말 어미 '-오-'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와 비교해 볼 때 그 체계나 표현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문장 변화의 주요 내용 요소라 할 수 있다.<sup>31)</sup>

문장 종결 표현 가운데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꼽자면 의문문이라 할 것이다.

- **의문형 어미** 중에 '-ㄴ가, -ㄴ고, -ㄹ가, -ㄹ고' 등은 주어가 1인칭이나 3인칭일 때 사용되었고, '-ㄴ다'는 주어가 2인칭일 때 사용되었다.

- 미래엔(2012:114)

- 두 가지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 어미** '잇가'(판정), '잇고'(설명)와 **의문 보조사** '가'(판정), '고'(설명) 등이다.

- 비상교육(2012:118)

30) 지학사(2012:310-311)에서는 명사절과 관형사절의 주어에 주격 조사가 아닌 관형격 조사가 쓰일 수 있었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시기의 문장 구조와 비교할 때 중요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31) 물론 부정 표현, 사동·피동 표현 등의 경우에도 약간씩의 변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 양상이 큰 문법적 표현 요소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판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 조사와 의문형 어미의 마지막 모음이 ‘卜’ 또는 ‘卜’인데...  
- 지학사(2012:307)
-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이 물음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ㄴ가’, ‘-ㄹ가’와 같은 ‘가형 어미’와 ‘-ㄴ고’, ‘-ㄹ고’와 같은 ‘고형 어미’로 달리 표현됨.  
- 수능특강(2013:83)
- 물음말의 유무에 따른 의문형 어미의 구별이 사라짐  
- 화독작문(2013:138)

중세 국어 시기 의문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이 구별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문을 실현했던 문법 요소는 ‘의문 보조사’와 ‘의문형 어미’였는데, 체언에 의문 보조사가 결합하여 의문문을 이루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인용된 기술을 보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대개 ‘의문형 어미’를 제시하고 있다. 의문문을 이루는 보조사와 어미의 형태가 같아 이들 모두를 의문형 어미라 한 것으로 보인다. 중세 국어의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에 의한 것과 의문형 어미에 의해 달리 실현되었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높임 표현에 대한 기술을 꼽을 수 있다. 주체 높임법은 현대 국어와 유사하지만,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의 경우에는 높임법의 체계나 실현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상대 높임의 등급과 선어말 어미에 대한 기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이-’는 상대 높임의 의미는 갖는 말이다.  
- 미래엔(2012:113)
- [중세 국어] 높임법 선어말 어미 ‘-사-’(주체 높임법), ‘-술-’(객체 높임법), ‘-이-’(상대 높임법)  
- 비상교육(2012:118)
-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대우하는 등급에 따라 ‘ᄃᆞᆫ쇼셔체, ᄃᆞᆫ야쵸체, ᄃᆞᆫ라체’의 세 등급이 있었다. 평서문에서 ‘ᄃᆞᆫ쇼셔체’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이-’가 쓰였고, ‘ᄃᆞᆫ야쵸체’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잉-’이 쓰였으며, ‘ᄃᆞᆫ라체’의 경우에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도 쓰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 지학사(2012:308)

- 상대 높임법은 상대자에 따라 종결법이 변화하는 것으로 중세에는 **하라체**, **하야썬체**, **하쇼셔체**, **반말체**가 쓰였다. - 천재교육(2012:318)
- 상대를 높이는 어미 ‘-(으)이/잇-’이 없어지고 ‘-습니다/ㅁ니다, -습니까/ㅁ니까가 그 기능을 대신함 - 화작독문(2013:138)

이처럼 상대 높임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敎材’에서 선어말 어미 ‘-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확인된다. 상대 높임법이 현대 국어에서는 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는 반면, 중세 국어 시기에는 선어말 어미가 중심이었다는 점은 문법적으로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 ‘-이-’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높임 등급 제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반말체’를 제외한 격식체 세 개의 높임 등급만 제시한 것과 ‘반말체’까지 모두를 포함하여 제시한 것이 그러하다. 당시 ‘반말체’는 ‘하라체’보다는 높고 ‘하야썬체’보다는 낮추는 면이 있던 것으로 상대를 높이지 않는 현대 국어의 것과는 사뭇 다른 용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대 높임의 등급 제시에는 ‘하쇼셔체, 하야썬체, 하라체’ 그리고 ‘반말체’까지 모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객체 높임법 실현 기능의 소멸에 대한 기술이다.

- [근대 국어]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법이 상대 높임법으로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 비상교육(2012:124)
- 객체높임법 ‘-습/줍/습-’(-술/줄/술-)도 그 기능이 소멸되면서 듣는 이를 높이고 공손하게 대하는 상대 높임법으로 변하였다. - 천재교육(2012:327)
- 상대를 높이는 어미 ‘-(으)이/잇-’이 없어지고 ‘-습니다/ㅁ니다, -습니까/ㅁ니까가 그 기능을 대신함 - 화작독문(2013:138)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이 발달하면서 중세 국어 시기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상대 높임에 그 흔적만이 부분적으로 남기고 객체 높임법 실현 기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敎材’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객체 높임법을 실현했던 문법적 표지가 현대 국어에서는 고유 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화작독문(2013:138)’의 경우 오해의 여지가 있다. 상대 높임법이 중세 국어 시기에는 선어말 어미 중심으로 실현되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고 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자칫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법 선어말 어미 ‘-이-’라는 표지가 아예 사라진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ㅁ니다/-습니다’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주지하다시피 ‘-ㅁ-/습’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으로 소급되며, ‘-니’에 중세 국어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느-’와 상대 높임 ‘-쇼셔체’ 선어말 어미 ‘-이-’가 결합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종결어미 ‘-다’가 연결되어 현대 국어의 ‘하십시오체’ 평서형 종결어미가 만들어졌다. 이처럼 중세 국어 시기에 상대를 극존칭 했던 표지의 기능이 현대 국어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교재 개발자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함인지 보다 명확히 기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상 차이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敎材’에서 시간 표현을 다루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세 국어 시기 시간 표현은 선어말 어미들에 의해 실현되었는데 현대 국어의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선어말 어미가 출현하지 않은 형식으로도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어가 1인칭 화자 자신인 경우에도 ‘-더-’가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품사(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따라 시간 표현의 방식이 달랐다. 그리고 현대 국어의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은 근대 국어 시기에 와서야 등장한다. 이처럼 시간 표현에 대한 내용은 대단히 흥미롭고 중요한 교육 내용임이 분명하다. 학교 문법에서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비해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간과한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sup>32)</sup>

## 마. 담화

[표 12] ‘담화’에 대한 내용 요소

		미래엔	비상 교육	지학사	천재 교육	수능 특강	화작 독문
매우 긴 문장 표현	중세						
	근대						
한 문장 속 여러 개의 대화	중세						
	근대						
생략된 문장 성분 많음	중세						
	근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검정 교과서에서는 ‘담화’ 단위의 변천을 다루고 있다. 공통적으로 언해본 《훈민정음》, 《석보상절》 등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세 국어에는 긴 이야기로 설명해야 할 내용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12]에 정리된 바와 같은데, 이러한 내용은 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부록에 수록된 ‘이야기’의 것과 거의 일치하는 바, 이전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sup>32)</sup>

한마디로 ‘담화’ 층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은 현대 국어에 비해 중세 국어 문장이 대단히 길었다는 데 있다. 문장 종결 표현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의 문장이 여러 개의 문장을 안고 있는 일이 많아 전체를 하나의 문장

32) 이밖에 선어말어미 ‘-오-’에 대한 기술상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김부연(2013:16-17)을 참조하면 된다.

33) 다음은 7차 문법 교과서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중세 국어에는 담화로 설명해야 할 현상이 현대 국어보다 더 많다. …(중략)… 현대 국어라면 두 문장으로 끊어질 수 있는 큰 문장이다. …(중략)… 중세 국어에는 이런 문장이 매우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장이 3, 4장에 걸쳐 이어지는 일도 있다. 그 속에는 대화가 여러 개 끼어드는 일도 많다. 이런 글들은 문장이라기보다 이야기라고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2:304 참조).

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몇 개의 작은 문장 단위로 나누어야 할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영근, 1990:12).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문장’보다 더 큰 단위로서 구체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담화’ 혹은 ‘이야기’로 파악하자는 것이다. 담화 중심의 문법 교육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국어의 역사를 이해해 보자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중세 국어 시기 문장의 고유한 특징을 현대 국어의 관점에서 이해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담화’ 범주는 다른 언어 층위에 비해 변화 양상이 그리 크지도 다양하지도 않으며 특정 시기에만 제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기문(2008:189-190)에서 언급 바와 같이 중세 국어 시기 단문은 거의 없고 복합문과 합성문이 뒤얹힌 복잡한 문장 구조로, 사건 또는 사고 속의 한 단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함이 원칙이었던 듯하다. 이러한 점에서 ‘담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중세 국어의 독특한 특징으로써 ‘문장’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

#### 4. ‘국어 변천사’ 단원의 개선 방향

본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 변천사’ 교육 내용을 ‘교재’로 구현할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언어 층위에 대한 처리 방안이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은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어휘’를 ‘단어’ 속에 포함시키고, ‘담화’ 중심의 문법 교육이 강조되자 이를 반영하여 학교 문법의 언어 단위를 이같이 재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가 변화되어온 모습 역시 네 개의 언어 층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층위 구분은 실제 ‘教材’로 구현될 때 많은 혼란을 안겨 주었다. ‘음운’을 ‘표기’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거나 형태론과 어휘론을 포괄하는 ‘단어’에는 어휘론에

대한 내용만을 기술하고 형태론의 문법 내용은 거의 ‘문장’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를 조정하여 ‘음운과 표기’, ‘어휘’, ‘문법’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담화’ 부문은 앞서 지적인 바와 같이 중세 국어 시기의 것만 다루었고, “문장이 현저하게 길다”라는 특징에서 파생된 내용 요소들일 뿐이다. 이렇듯 각 언어 층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 변천사’에서는 국어의 변화되어 온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언어 층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리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언어 외적 구조 변화 : 표기법(또는 정서법)의 변화
- 언어 내적 구조 변화 : 음운, 문법(형태·통사), 어휘 등에 나타난 변화

언어 내·외적 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표기법’을 다른 층위로 독립시켰다. ‘음운’, ‘문법’, ‘어휘’ 등은 언어의 내적 구조 층위에서 수행된 언어 변화인데 반해 ‘표기’는 이들 언어 사실과 다른 차원의 것이다. 기존 ‘담화’ 부문은 중세 국어의 ‘문법’ 단위에 포함하여 문장 ‘복잡하고 긴 문장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로써 학습 순서를 언어 외적 변화인 ‘표기법’에서 시작하여 언어 내적 변화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학교 문법 차원의 표준화된 내용 요소를 제시한다. 교과서 검정 체제가 도래하고 참고서가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 어떤 것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교재 개발자의 몫이 되었다. ‘국어 변천사’는 주제의 특성상 이해하기 쉬운 설명문이 필요하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정 교과서 모두 교과서 저자 개인이 직접 집필한 글을 수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 변천사의 내용 요소는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취사선택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 요소이더라도 기술상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교재마다 내용 수준의 경중에 차이를 보이고, 학계에서 이견을 보이는 내용임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시한다거나,

대단히 추상적으로 혹은 부정확하게 내용을 진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은 분명해진다. ‘국어 변천사’에 대한 내용 가운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sup>34)</sup> 교과서 검정 체제의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겠으나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과 교과서 검정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시급한 사안이다. 현실적으로 각기 다른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이 새롭게 바뀐 수능 시험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라도 내용을 표준화시킬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써 학문적 검증 과정을 거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학교 문법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그 내용을 교육과정 부록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부록의 ‘국어의 변천사’ 항목에 표준화된 내용 요소, 핵심 개념, 기술 수준 및 방식, 교과서 편찬 지침, 학습 사례 등을 실어줌으로써 국어과 교사와 교재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내용을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

34) 국어사 교육 내용 선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최근 논의된 사항들 가운데 대표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관규(2004)에서는 함목적성, 유용성, 빈도성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되 흥미성은 유용성과 빈도성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고, 국어사 내용 배열을 위해서는 가치성, 학습 가능성, 단순성, 교수 가능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박형우(2013)에서는 ‘국어사 지식에 대한 이해’, ‘국어사와 관련한 현상에 대한 탐구와 적용’, ‘국어와 국어 문화에 대한 태도’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학문적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은 주로 ‘지식’의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탐구와 적용’, ‘태도’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국어교육의 목표가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국어사 교육이 국어 교육의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내용 선정 기준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

35)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2010 공통핵심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이하 CCSS)에서 실행되고 있다. 공통핵심기준의 ‘부록’에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부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43쪽에 달하는 ‘부록 A’에서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기반과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있고, ‘부록 B(200쪽)’와 ‘부록 C(100쪽)’는 예시 자료로 각 학년별 수준의 텍스트 예시 자료와 수행 과제, 학생 수행 결과물 등을 수록하고 있다(이순영, 2011:28-29 참조).

한 근본적인 문제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단히 신중하고도 공정한 선택이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변천’에 초점을 둔 내용을 제시한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의 소실을 비롯한 음운 체계의 변천, 단어의 형태와 의미 변화, 높임법의 변화와 같은 문장의 변화, 담화 소통 방식 및 담화 범주의 변천 등 국어사의 중요 사실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 시기의 중요한 특징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말이 출현한 고대 국어 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현대 국어 시기까지의 변화 양상을 음운, 문법, 어휘 등을 중심으로 살피되 각 시기별 특징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어 변천사’는 그야말로 ‘변천’에 중점을 둔 내용이어야 한다. 물론 특정 시대에 존재했다가 사라져 오늘날 언어 현상에 나타나지 않는 언어 요소들에는 통시적인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특정 시기의 국어라고 해서 ‘변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역사적 변화가 분명 있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자취가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다. 교육과정에서 “현대국어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 국어사를 지나치게 넓고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으니,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변천’의 수준은 현대 국어의 표기, 음운, 문법, 어휘의 모습이 언제,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 고대 국어 시기부터 살펴보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역사적 정보는 현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며, 현대 국어 문법 학습에 국어 변천사의 내용을 연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어의 모습을 보다 합리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우리 국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탐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탐구 활동을 제시한다. 이때 ‘탐구’의 핵심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 그 자체 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안



하는 것이다. 곧 소재가 되는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것이냐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다(김유범 외, 2012:105). 이러한 점에서 ‘국어 변천사’는 탐구 활동이 가능하다. 우선 ‘표기’, ‘음운’, ‘문법’, ‘어휘’ 등의 언어 단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과정 및 원리가 발견될 수 있도록 보편적 가설과 원리에 근거한 탐구 활동을 마련한다. 해당 시기 특정 언어 요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 바로 앞 시기와 다음 시기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비교·대조해 보도록 한다. 이 때 특정 요소에 대한 정확한 공시적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학교 문법에서는 학자들 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교과서에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지식이 아니라하여 무조건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를 탐구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합의되지 않은 이견 가운데 학생 수준에 적절한 것을 교사가 취사선택하여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국어의 변천 과정을 다양한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탐구 학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탐구 학습 방법들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변화를 인과 관계로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고, 국어의 변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시적 언어 현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내용 요소에 대한 충실한 기술이 필요하다. 일부 ‘教材’ 가운데 ‘변천’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사적 지식의 단편 나열식 지양”을 명시하고 있는데, EBS 연계 교재와 나열식으로 내용을 제시한 검정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기고 있다. 특히 EBS 연계 교재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학생들이 탐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다. 물론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사를 지나치게 넓고 깊게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선정한 내용 요소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국어의 변화 대상과 발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기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명확하고 상세한 기본 지식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앞서 논하였던 탐구 활동은 불가능하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2014학년도 개편 수능과 관련하여 검정 교과서 및 EBS 연계 교재에서 ‘국어 변천사’ 교육 내용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과 수능 시험의 개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국어 변천사’는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이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은 앞으로 교육 내용의 존속을 보장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개신(改新)을 위한 방안을 부지런히, 여러 모로 궁리할 때에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발전된 모습의 ‘教材’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정 및 교재]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 호.

교육인적자원부(2002), *고등학교 문법*,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주)두산.

박영목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 천재교육.

윤여탁 외(2012),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 미래엔.

이남호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 비상교육.

이삼형 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주) 지학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BS교육방송편집부(2013),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B형*,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수능특강편집부(2013),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한국교육방송공사.

### [단행본 및 소논문]

고영근(1990), 「문장과 이야기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7.

고영근(2010), 『(제3판)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국립국어원 편(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 · 실태 연구 1: 중세 국어』, 국립국어원.

김동소(1998), 『한국어 변천사』, 형설출판사.

김무립(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김부연(2013), 「교수학적 변환론과 국어사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문법교육학회 제 19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문법교육학회, 4-22.

김유범·김부연(2012), 「국어 문법 교과서 개신을 위한 방향 모색」, *한국어문교육* 1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81-125.

김유범(2013ㄱ), 「중세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63-96.

김유범(2013ㄴ), 「2014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과 국어사 교육」, *문법교육* 18, 한국문법교육학회, 45-63.

민현식(2011), 『(수정판)국어 정서법 연구』, 태학사.

박형우(2013), 「국어사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7-33.

이관규(2002), 『(개정판)학교문법론』, 월인.

- 이관규(2004), 「국어사 교수 학습 내용의 체계성과 위계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20, 국어교육학회, 407-430.
- 이기문(2008), 『(新訂版)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병운(2011),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부산대학교출판부.
- 이순영(2011), 「21세기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7-35.
- 홍운표(2009), 「근대국어의 국어사적 성격」, 국어사연구 9, 국어사학회, 153-172.
- 황선엽(2013), 「고대국어에 관한 국어사 교육」, 국어사연구 16, 국어사학회, 35-61.

김부연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36-090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31-21  
02-3290-2340, 010-5444-2760  
by8088@korea.ac.kr

접수 일자 : 9월 10일  
심사(수정, 재심) 일자 : 9월 16일 ~ 10월 16일  
게재 확정 일자 : 10월 19일

A Study on ‘The Changing History of Korean Language’  
in School Grammar  
- focused on «Reading & Grammar II»” in high school  
textbooks and EBS connected teaching materials -

Kim Bu-Yeon (Korea Univ.)

This study concerns the goals of educational contents about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in school grammar regarding the revise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in South Korea for 2014. An investigation is made into what are recorded in “Reading & Grammar II” in high school textbooks and EBS-connected teaching materials and then, future directions for improvement are presented including 1) suggesting how to treat language units, 2) suggesting standardized content elements in school grammar, 3) suggesting what contents are focused on ‘changes’, 4) suggesting inquiry activities and 5) suggesting detailed contents in question.

\* **key word** :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history, educational contents, the changing history of korean language, «Reading & GrammarII» textbooks, EBS connected teaching materials, New 2014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